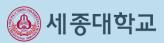
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3주차. 이승만(2) 2강. 부정적 평가(2)





- 1.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의 한국전쟁 예방 실패, 헌정 유린, 정치군인 육성은?
- 2. 한국전쟁 예방 실패, 헌정 유린, 정치군인 육성 평가의 객관적·주관적 측면은?





- 1. 이승만 정권 하의 한국전쟁 예방 실패, 헌정 유린, 정치군인 육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.
- 2. 이 둘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, 그 정권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2강 부정적 평가(2)





생각해 볼 문제

- 123
 - 나는 지금까지 한국전쟁 예방 실패, 헌정 유린, 정치군인 육성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?
 - 역사적 평가에 대한 어떤 한 면만을 강조할 때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?

3] 한국전쟁 예방 실패

☑ 건국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방력 강화에 미흡한 결과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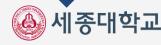
◆ 반론: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음
 : 특히, 한국전쟁을 국제전으로 이해하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· 군사적 이익이 한반도에서 가장 참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, 전쟁은 불가피했음

- ☑ 집권 연장의 목적 등으로 개헌, 부정선거 등을 저질러 민주주의를 후퇴시킴
- ☑ 이승만 정권 하의 헌법개정
 - → 이승만의 주장으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1인 독재의 가능성이 내포되었던 제헌헌법은 개정될 수 밖에 없는 운명



☑ 제1차 개정

- 한국전쟁 기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, 1951년 11월 정부는 국회의 양원제 및 대통령 · 부통령의 국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압도적으로 부결
- 이어서 야당이 1952년 4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자, 정부는 먼저 부결된 직선제 · 양원제안을 약간 고쳐 그 해 5월에 다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정면 대결하는 '정치파동'이 일어났음
- 그러나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하여 절충한 안이 공고(公告)와 독회(讀會)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, 무장경관으로 포위된 비상계엄령하의 심야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
- 이 개헌을 발췌개헌(拔萃改憲)이라 하는데, 공고의 절차도 없었고 또 개헌안은 수정할 수 없는 데도 이를 수정하였으며, 표결의 자유마저 없었으므로 그 합헌성에 의문이 있었음
- 주요 개정내용은 국회의 양원제, 대통령·부통령 직선제,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원 불신임권 등



☑ 제2차 개정

0

서울 수복 후인 1954년 1월 정부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가 갑자기 철회하더니, 5·20 선거 후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안을 제출



그해 11월 27일 민의원(民議院)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3분의 2 미달로 부결



29일 4사5입(四捨五入)의 수학 원리를 적용하여 여당인 자유당 의원의 가결로 번복이를 '4사5입 개헌'이라 하였는데, 국회의결에 4사5입의 원리를 도입



주요 개정내용은 주권의 제한 및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,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제의 폐지, 경제 조항의 자유경제 체제로의 수정,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의 철폐,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적 자격 부여 등



세종대학교

☑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본보기인 3·15부정선거

- ⇒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,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음
- ▶ 전국적으로 유령 유권자 조작, 4할 사전투표,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,
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, 야당 인사의 살상, 투표권 강탈, 3~5인조
 공개투표, 야당 참관인 축출, 부정 개표 등을 자행함
- →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~99%에 이르렀으나 하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(85%), 이기붕 833만 표(73%)로 발표
- → 그러나 3월 15일 마산(현 창원시)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시위진압 도중 경찰의 실탄 발포로 최소한 8명이 사망하고, 72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
- ➡ 이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
- ➡ 4월 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



5] 정치군인 육성

☑ 정치적 입지 구축,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, 테러 목적으로 정치군인 에 대한 지원강화

정치군인: 김창룡

- 공산당 색출과 군대 내의 적색분자 제거에 공헌했으나 권력을 남용하고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해 암살당함
- 1941년 일본 관동군(關東軍) 헌병대에 입대하였다가 8·15광복 후 귀국하여 1947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, 3기생으로 졸업
- 1951년 육군 특무부대장이 되었고, 1953년에 준장, 1955년에는 소장으로 승진
- 공산당 색출과 군대 내의 적색분자 제거에 공헌하여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음
- 권력을 남용하고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하자, 이에 불만을 품은 육군대령 허태영의 하수인 송용고·신초식 등에 의하여 1956년 암살당함
- 사건 직후 이승만은 김창룡에게 1계급 특진 추서



학습정리

-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는 한국전쟁 예방 실패, 헌정 유린, 정치군인 육성 등이 있다.
- 이런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, 이에 대한 반론 도 존재한다.